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극치를 묘사한 로마서 8장을 이제 끝을 내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바울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위치입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로 이끌어 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 주심을 이방인 믿는 자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이 육신적으로 자기 형제인 유대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권에 따라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왔던 나라인 유대인들을 한동안 제쳐놓으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들어오려면, 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를 배반자라고 생각 할 것이고, 또한 자기를 비난하며,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아무런 적대감도 없음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다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고, 바울 자신도 자기의 형제인 유대인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적개심이 있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강한 말씀으로 9장을 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9:1).**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어떻게 말하여야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나의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크게 놀리는 마음과 계속되는 근심이 있으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찌라도 원하는 바로라(9:2-3)**

이것은 아주 강한 선언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선언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경우에 그의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증거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위한 큰 마음의 짐과 마음에 놀리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의 동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진술을 기억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뒤로 물러서라. 내가 이 백성들을 모두 멸하겠다” 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모세는 계속 말하기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묘사하며, 이 사건에서 사람을 영웅시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백성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러한 기도를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공혈을 베풀 자에게 공혈을 베풀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권을 발휘하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으며, 그들에게 공혈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동족을 위한 무거운 마음을 갖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술한 말이 필요가 없는 말이며,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인생의 죄를 위하여,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언은 아주 고상한 생각입니다. 나의 모친이 불치병인 암이 걸려 집에서 고생하고 계실 때에, 암의 말기에 우리들이 돌보고 있었는데, 나의 모친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천사와 같은 저의 모친은 한번도 아프다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고통스럽다는 말을 나는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친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방에 잠깐 들어가 보면, 저의 모친은 누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모친은 마지막 날들을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으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저의 모친의 방에 들어 갔는데, 그녀가 몹시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니, 나의 마음이 심히 무거웠습니다. 나의 모친과 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가운데 나의 주위에 보내주신 훌륭한 여자 성도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나의 모친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매와 나의 딸들이 그들입니다. 이 모든 여자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나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님, 나는 영웅도 아니고, 아무 볼 것이 없는 자이지만, 어머니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어머니가 몇 일이나 고통을 면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평생에 그렇게도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해 본 적은 없었으며, 그날 아침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곁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척, 그것은 어리석은 요구이다. 내가 이미 네 모친의 고통을 담당하였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나는 반응하기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 ‘나의 요구가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나의 어머니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 통증을 제거하셨습니다. 그 이후 제 모친은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통증을 제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을 제 모친이 직접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나타남을 우리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진술을 한 후에,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고상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한 말은 어리석은 말이다”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말로 표현하는 것인 줄로 알지만, 네 자신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하겠다는 것은 필요 없는 생각이며,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 상상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표현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영적 거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진술은 우리로써는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동족이요, 육신으로 형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9:4).*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택하셨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쉬카이나 영광이 임했습니다. 성막이 완성 되어 저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곧 쉬카이나 영광이 성전에 임하여 제사장이 수종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곧 쉬카이나 영광입니다. 지성소에 임한 쉬카이나 영광이 그들에게 속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복에 있어서는 내가 너에게 복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나중에 야곱과, 그리고 다윗에게 반복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그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성전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의 법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 백성과 나라와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9:5)*

바울이 헬라 원어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로 강하게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흠정역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사라는 신성이 약하게 번역되어 있어서 유감입니다. 킹제임스 번역을 본다면, “Whose are the fathers, and of whom as concerning the flesh Christ came, **who is over all**, God blessed for ever. Amen”(Rom. 9:5, KJV) 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 보면, “and of whom as of concerning the flesh, Christ came, **who is God over all**, blessed forever.” 여기서 이것들을 설명해 본다면, 흠정역에는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자 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자라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사라는 강조가 헬라 원어에서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으며, 약속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으며, 그리고 또 바울은 말하기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9:6)**

지금 이스라엘을 영적인 감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을 하다가 주워진 이름이 이것입니다. 날이 밝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야곱이 환도뼈가 붙어져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야곱은 4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자기 형인 에서를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형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에,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야곱이 끈질기게 씨름을 한 결과, 그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천사를 붙들고 매달릴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날이 밝아오니, 놓으라!”고 말하니, 야곱의 대답이, “나를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나이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글에 보면, 야곱이 울면서 간곡히 애걸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리한 위치에서 조건부적인 요구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태에서 간절히 애걸하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저에게 복을 주지 않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애걸했을 것입니다. 그의 자세는 완전히 깨어진 야곱으로, 울면서 간곡히 애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그에게 묻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나?” 그는 대답하기를, “발 뒤꿈치 잡습니다(야곱이란 이름의 뜻)”라고 말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야곱(발 뒤꿈치 잡이)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통치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입니다’라고 말했다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여 참으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이 뜻하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마귀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9:7)**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워진 약속과 언약과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을 쫓아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씨로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 이삭을 취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일을 인정하기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자신이 행한 육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신의 일을 인정치 않으시고, 우리를 통한 성령님의 하신 일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삭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9:8)**

그래서 이스마엘과 육신에 속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0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9:9-13).**

우리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반응을 예측했듯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9:14)**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아니한 자녀들에 대해서 한 사람은 미워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한다고 그렇게 선언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미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하시니,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비성경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전 생애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전 생애의 이야기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며, 야곱은 영적인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그가 속이고 간교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예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어떤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으며, 또한 우리도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였듯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는 세상의 터가 서기도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택하였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때에 나를 알고 계셨고, 또한 내가 미래에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셨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며, 그분에게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예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실 수가 있고, 또한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듯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6) 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전도자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자는 손을 드시오’ 라고 말할 때, 당신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 주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것을 미리 아신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반응한 것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놀라게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지에 의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9:14)**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공휼히 여길 자에게 공휼을 베푸느니라”(출 33:19)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 한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말씀 하시기를, “모세야, 뒤로 물러서라. 내가 이 백성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고 하심이 그의 의로우심이 죄를 허용치 못함을 나타내고 있으나, 하나님은 또한 모세의 마음속에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할 마음을 넣어 주셔서 그가 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휼히 여길 자를 공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9:15)**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9:16)**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택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의지로써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되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희망하는 것일지라도 실제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하고, 자랑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때는 길을 잃었고 이제는 찾은바 되었으며, 한 때는 눈이 어두웠으나 이제는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지요?

####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9:17-18)**

이 말씀도 공평치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여 선언 하시기를, “내가 하고자 하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하였다” 라고 기록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 열 번이나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강박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열 번째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강박한 마음을 굳게 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두 가지 종류의 히브리 말의 ‘강박’ 이란 말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경우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하였다” 라는 말이 원어에서 그대로 번역되었고, 열 번째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하였다는 말은 둘째의 ‘강박’ 이란 의미의 말을 사용하였는데, 그

원어의 뜻이 “바로 강박하고 고집된 마음을 굳혔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가 계속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하고, 또 강박케 하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강박한 마음을 굳히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의 마음을 계속 강박케 할 때에,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을 굳히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굳히실 때는 그 사람이 용서 받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는 회개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비극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마음을 강박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결정한 마음을 굳히시는 것입니다. 이 때는 요 12:39에 기록한 것과 같이,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강박케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이 이적을 거듭하여 보여 주셨으나, 믿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나의 행하는 일을 믿으라. 그 일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행한 모든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강박케 하고, 또 강박케 하고, 또 강박케 하므로, 드디어 요한은 말하기를, 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강박케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박한 마음을 굳히시는 경지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공회히 여길 자를 공회히 여기고, 강박케 할 자를 강박케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9:19상)**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강박케 했다고 허물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허물하시는가 말입니다.

#### **누가 그 뜻을 대적하뇨 하리니(9:19하)**

바울은 말하기를,

#### **이 사람이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뇨(9:20)**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혹은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라고, 대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간창조의 초기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기를, “아담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하셨을 때에,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는 태도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라며,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이렇게 되고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나는 그의 뜻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9:21)**

바울은 지금 토기장과 진흙의 비유를 들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나타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아름답고 존귀한 그릇을 만들고, 다른 그릇은 아름답지 못한 그릇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9:22)**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의 능력으로 치시기 전까지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악을 행하여도 벌을 받지 않고, 아무일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약하다’ 는 잘못된 해석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멸할 능력이 없으신 모양이다, 더 나쁘게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악한 행위를 인정하고 묵인하는 모양이다’ 라고 잘못 해석하는 자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방탕한 삶을 좋아하시지 않으면, 왜 나를 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수도 있으신데, 아무 일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나의 방탕한 생활을 인정하시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아주 비극적인 실수입니다.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은 회개치 아니하는 악인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악행을 하며 살고 있을 때에, 비록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이라 할지라도 자주 그들의 명대로 살게 두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핍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9:23)**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부를 체험케 하기 위하여 자비의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9:24-25)**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의 자비와 은혜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릴 것이며,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를 자기 백성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를 것이 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가야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9:26-2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다고 말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후손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가야 예언하기를 그 중에 남은 자, 곧 일부분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가야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9:28-33)**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부딪힐 돌이 되었다면, 오늘날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애써 왔는데 결코 달성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된 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제자들을 경악케 하였으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경에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빈틈없이 율법의 의를 지켜보려고 애쓴 자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너희들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상상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지각적인 반응은, ‘불가능하다. 다 접어라.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당신은 바리새인들이 의롭게 되어 보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생각을 아예 접는 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눈에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뻔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4-8) 라고 했습니다. 나와 과거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한때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힘쓰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되는 일을 재미있게 묘사한 예화를 들을 적이 있다. 한 가난한 집의 어떤 사람의 딸이 명문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학비를 조달할 수 없어서 그 딸은 고향으로 가까스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때 입기 위하여 다른 친구 여학생들 모두 새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학생은 새 옷을 살 돈이 없어 싸구려 옷감 집에 가서 아주 싼 값으로 천을 사서 불품없는 솜씨로 옷을 기워 만들었습니다. 바느질이 고르지 못하자, 다시금 깎고 하여 결국 옷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졸업식 때 입을 옷이라며 자랑스럽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 옷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측은히 여기면서, ‘참 좋구나’ 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옷은 너무나 흉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부자 마님이 나타나서 가난한 여학생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쇼핑을 하자’ 고 했습니다. 그 부인과 함께 밖에 나가보니, 밖에는 운전수가 차를 대기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섹스 힙스 에비뉴 라는 고급 양장점으로 갔습니다. 멋진 모델이 고급 옷을

하나씩 입고 나와 선을 보이는데, 마지막에 모델이 입고 나온 옷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옷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옷을 보고 매료되어 말문이 막혀 놀란 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때에 부자 마님은 그 여학생의 놀란 표정을 보고, 그 옷을 입은 모델을 다시금 가까이 오게 하여 그 옷을 자세히 점검했습니다. 모델은 다시 와서 그 옷의 모든 면을 몸을 돌려 보여줄 때, 그 옷에 붙은 가격을 보니 4백만원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그 가격표를 보고, '오, 이 세상에 저렇게 비싼 가격의 옷이 있었나?' 라고 속으로 생각 했습니다. 부자 마님이 그 여학생의 놀란 표정을 보고, 점원에게 그 옷을 상자에 넣어 달라고 하며, 돈을 주고 구입했다. 그리고 대학교 기숙사에 돌아 와서, 부자 마님이 그 옷을 그 여학생에 선물로 주면서, '졸업식 때 잘 입으라' 고 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기숙사로 들어가, 상자에서 옷을 끄집어 내서 입으니, 너무나 아름답고 몸에 꼭 맞았다. 방에서 나가 친구들에게 그 옷을 보이면서, '내가 졸업식 때 입을 옷인데, 좀 보렴. 내 손으로 결코 만들 수 없는 아름다운 옷이지!' 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누더기를 이리 저리 부쳐 만든 옷을 입고,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합니다. 비뚤어진 바느질, 싸구려 천, 맞지 않는 기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이 옷은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도 없고, 나 자신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옷입니다. 그러나 이 옷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달성지 못한 의를 이방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얻어 보려고 하였으나, 얻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율법을 지키므로 오는 나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바리새인중에 열심이 있는 바리새인이지만, 내 자신의 힘으로 결코 이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보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 주셨는지 보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 이외에는 모두 쓰레기며, 과거의 영광과 행한 일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